

小林勝と崔圭夏

メタデータ	言語: kor 出版者: 公開日: 2021-07-16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s://doi.org/10.24517/00063010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3.0 International License.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와 최규하(崔圭夏)

하라 유스케(原佑介)*

- I. 들어가며
- II. 대구의 “일본인 중학교”
- III. ‘우메하라 게이이치(梅原圭一)’의 침묵
- IV. 삼십년만의 충격
- V. 마치며

I. 들어가며

한 사람의 공산주의자로서, 또 평생을 일관하여 한국을 자신의 문학적 과제로 삼은 희귀한 소설가로서 전후(戰後) 일본에 살았던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 1927~1971)는 조선 식민자(植民者) 2세라는 강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출자에 대한 집착이 전후 일본에서 그의 삶을 규정하였고 나아가 문학적 창조의 원천이 되었다. 그는 전후에 곧바로 전투적인 공산주의자로 변모했는데, 한국전쟁 때에는 화염병을 던지는 것으로 일본 정부에 저항하였다. 체포되어 옥중에 있을 당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가는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을 목도한 것이 그를 “자극하여 소설을 써 나가도록 한 힘”이 되었다. 남북으로 찢겨진 한국의 피를 밀천으로 경제 부흥과 재군비를 향하여 돌진하는 일본에 대한 “끓어오르는 듯한 분노”가 자신의 문학의 원점이 되었음을 그는 훗날 회고하고 있다.¹⁾ 공산주의자로

* 일본학술진흥회특별연구원(日本學術振興會特別研究員)PD.

1) 『小林勝作品集』 4권, 白川書院, 1976, 254~256쪽.

서 한국전쟁에서 맞본 패배의 체험과 식민자 2세라는 스티그마(stigma)를 창조적 양식으로 삼았던바, 한국과의 대면을 피해오던 전후 일본문학사에 “질과 양의 측면 모두에서 발군”이라고 평가되는 문학을 남겼다.²⁾

그런데 고바야시 마사루는 “지금은 거의 잊혀진 듯한”작가이다.³⁾ 아니, 생존 당시부터 세간에서는 거의 인지되지 못했던 마이너 작가였다고 하겠다. 마이너 작가로 살아가는 것은, 예를 들어 역사 연구분야에서도 “조선사를 전공으로 삼는 것은 전 생애에 걸쳐 재야에서 연구함을 의미한다고 해도 좋을 1950년대에서 1970년대”⁴⁾에, 한국을 주제로 소설을 쓰면서 살았던 고바야시의 숙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문학역구는 많지 않지만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주목해야 할 연구들이 나타났다(이원희, 2001 ; 최준호, 2011 ; 오미정, 2011). 특히 최준호와 오미정은 고바야시 마사루의 초기작품들을 상세히 분석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도 고바야시 마사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뜻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고바야시의 약력을 소개해둔다.⁵⁾ 고바야시 마사루는 1927년 식민지 조선 진주에서 농림학교 교사의 3남으로 태어났다. 안동에서 살다가 소학교 시절에 대구로 옮겨, 1940년 대구중학교에 입학하였다. ‘문화정치’가 황혼을 맞이하고, 일본이 중일 전면전쟁에서 대영미(對英美) 전쟁으로 돌입하던 시대에 소년시절을 보냈다. 1944년 3월 대구중학교를 4년으로 조기에 수료하고, 육군예과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때 조선을 떠났다. 수험시절에는 “내가 육사를 돌파하면 반드시 항공병이 되어 원수 아메리카·영국을 격멸하겠다”고 기록하고 있다. 패색이 감돌던 1945년 3월 육군항공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적합에 산화하겠다는 소원은 성취되지 않았고, 일본의 패전을 계기로 사회에 복귀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였다.

2) 磯貝治良, 「原風景としての朝鮮」, 『季刊三千里』 1982년 봄호, 208쪽.

3) 박유하(朴裕河), 「小林勝と朝鮮」, 『日本文學』 2008년 11월호, 44쪽.

4) 조경달(趙景達), 「戰後日本の朝鮮史研究」, 歴史學研究會 엮음, 『韓國併合』 100年と日本の歴史學』, 青木書店, 2011, 166쪽.

5) 고바야시 마사루의 경력에 대해서는 「小林勝略年譜」, 『小林勝作品集』 5권, 398~406쪽 참조.

패전 후의 폐허 위에서, 고바야시 마사루 역시 자신의 근본적인 재구축을 모색하였다. 1948년 일본공산당에 입당하였다. 다음해에 와세다(早稲田) 대학 러시아문학과에 입학한 고바야시는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면서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에 참가하였다. 1950년 코민포름의 일본공산당 비관을 계기로 시작된 분과투쟁을 체험하게 되었다. 또 레드 퍼지(Red Purge, 1950년 일본에서 벌어진 좌파 축출행위) 반대투쟁에도 투신하여 정학처분을 받아 결국 다음해에 중퇴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2년 6월 25일 “무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의 군사방침에 따라 한국전쟁을 반대하는 비합법 데모를 했고, 경찰이 조선인 소학생과 중학생을 습격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화염병을 던지다 체포되었다.”⁶⁾ 약 6개월 동안 옥중에서 지낸 고바야시는 바로 거기서 첫 소설을 썼다. 감옥에서 나간 후 문학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이른다.

1956년에 발표한 「포드·1927년(フォード一九二七年)」으로 아쿠타가와상(芥川賞) 후보가 되었다(3번 후보가 되었지만 결국 수상은 하지 않았다). 1959년에 한국전쟁 때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이유로 실형판결을 받고, 약 반년 간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64년부터 1966년 사이에는 폐결핵에 걸려 투병생활에 들어감으로서 일단 창작활동이 둔화되거나, 퇴원 후 몇 년 동안은 한국을 주제로 한 작품 집필에 더욱 왕성하게 매달린다. 이는 소설집 『쪽발이(チョップパリ)』(1970년)와 『조선·메이지 52년(朝鮮-明治五十二年)』(1971년)으로 결실을 맺었지만, 1971년 3월에 향년 43세로 병사하였다.

대략 인생의 전반기를 식민지 조선에서, 후반기를 전후 일본에서 살았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전반기는 식민자의 아들로서, 후반기는 공산주의 작가로서 보낸 인생이었다. 제국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식민자 2세라는 출자와 전후 공산주의자로서의 문학활동은 당연히 그 자체가 모순적이다. 그러나 고바야시는 식민자 2세로 살았던 소년기의 삶과 공산주의자로 싸워온 전후의 삶 모두를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당으로부터 한국전

6) 小林勝, 「目なし頭」, 『小林勝作品集』 4권, 196쪽.

쟁 당시 투쟁의 의의를 공식적으로 부정당하고, ‘극좌모험주의(極左冒險主義)’로 내팽개쳐진 후에도, 그는 죽을 때까지 공산주의자라는 데에 집착하였다.

고바야시는 식민자 2세 작가요, 공산주의 작가였다. 식민자 2세와 공산주의자라는 절대적으로 양립되지 않는 두 가지의 자기인식이 만들어내는 격렬한 갈등과 분열, 긴장감이야말로 그 문학이 가지는 최대의 매력이 되었다. “식민지가 된 조선반도 혹은 조선인에 대한 깊은 ‘죄악감’”, “그 ‘속죄의식’의 강렬함”만으로 그의 문학의 특징을 환원시킬 수는 없다.⁷⁾ 고바야시의 문학은 일본이 한국에 가해온 수많은 악행을 알게 된 식민자 2세가 전후에 개심한 결과 썼다고 하는, 단순한 참회의 문학은 결코 아니다.

전후 일본에서 한국사 연구의 선구적 존재였던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는 고바야시의 문학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고바야시처럼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난 일부 일본인 문학자가 시도했던 ‘자기부정에 의한 재생’의 사상적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식민지라는 자기모순을 살아온) 자신의 항상적(恒常的)인 존재 위기를 감지하고 이것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손쉬운 정서적 해결의 길은 없다. 고로 그들은 자기부정의 고뇌에 단련된 강인하고 추상적인 논리가 지니는 보편적인 의의를 획득할 수 있던 입장에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선 완전한 자기부정을 한 후에야 자기의 재생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자른 칼은 그 연장선 위에서 식민자를 식민자이게 했던 ‘내지(內地)의 사람’과 전후의 일본인을 전체로서 관통하는 힘을 가지게 되리라.”⁸⁾ 또 조선 식민자 3세 시인 무라마쓰 다케시(村松武司)는 고바야시의 문학을 평하면서 “일본 전체를 연루시키면서 조선이라는 불꽃 앞에 스스로의 몸을 태우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⁹⁾ 고바야시는 전후 일본에서 살아가는 공산주의자라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식민자 2세라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역설적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문학은 자신의 식민지 체험을 응시하면서 “자기부정에

7) 川村湊, 「小林勝外伝」, 『滿州崩壊』, 文藝春秋, 1997, 209쪽.

8) 梶村秀樹, 「植民地朝鮮での日本人」, 『梶村秀樹著作集』 1권, 明石書店, 1992, 240쪽.

9) 村松武司, 「植民者作家の死」, 『朝鮮研究』 1972년 3월호, 45쪽.

의한 재생”에 도전했음으로 단순한 개인적인 참회의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고발문학으로 보편화해갔다.

나는 이 글에서 고바야시 마사루의 마지막 글이 된 에세이 「그렇다'고 해서는 안 된다(「懐しい」と言ってはならぬ)」(1971년)와 그 에세이에서 반성적으로 반추되고 있는 초기의 단편소설 「일본인 중학교(日本人中学校)」(1957년)¹⁰⁾ 라는 두 텍스트를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만년의 그는, 식민지 2세의 마음 속에 깃들여 있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향수를 거절하려는 자신의 입장을 문학적 주장의 핵심에 두고 소설을 썼다. 마지막 에세이 「그렇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왜 그가 조선에 대한 향수를 거절해야 했던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주제로 삼고 있다. 단문이긴 하지만 그 제목에서 단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가 설정하고 있던 문학적 과제의 본질이 대단히 선명하게, 그리고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II. 대구의 “일본인 중학교”

왜 한국을 “그렇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고바야시 마사루의 문학을 해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특히 만년에 들어선 후의 그 문학은 이러한 테마를 근간으로 삼아 추구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세이 「그렇다'고 해서는 안 된다」에서 그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런 주장의 근거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글의 첫머리에서 고바야시는 “내가 예전에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 화되어 있던 조선에서 태어났으며 거기에서 성장한 체험에 바탕을 두고, 말하자면 체험 그 자체에 밀착한 형태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지만 그것은 오해로서 대부분의 등장인물과 설정은 상상력의 산물이라

10) 『小林勝作品集』 1권, 101~118쪽.

고 단정한 뒤에, 그러나 예외도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초기의 단편소설 「일본인 중학교」가 그러하다. 고바야시의 문학작품을 조망해보면 식민지 조선에서 있었던 실제 체험이 농후하게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는 기술은 대단히 많다. 그러나 그것들이 실제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적다. 비교적 단명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학작품 이외에 식민지 조선에서의 체험을 직접 쓴 적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소설 「일본인 중학교」는 “체험 그 자체에 밀착한 형태로” 썼다고 그가 언명하고 있는 예외적인 작품이고, 그런 의미에서 고바야시의 식민지 체험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귀중한 실마리가 된다. 그 단편소설은 잡지 『문학계(文學界)』 1957년 2월호에 발표되었는데, 고바야시는 이를 돌이켜 “조금도 문체시 되지 않았다”고 자조하고 있다.

소설의 무대는 고바야시가 다니던 전쟁 말기의 일본인 중학교인 대구중학교이다.¹¹⁾ 소설의 첫머리에는 대구시가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20십간 (넓이의) 도로를 중심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일본식 건물이었다. 그리고 도로를 멀찍이 둘러싸는 형태로 초가와 기와지붕의 조그만 집들이 모여 있어서 폭넓은 띠와 비슷한 호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시내로 몰려들어온 일본인에 의해 시가의 중심에서 밖으로 몰려난 조선 가옥이었다.” 경성, 평양, 부산 등의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대구에서도 일본인 식민지들은 행정과 경제활동의 중심지에 집주하였고, 조선인 거주지구와는 분리되어 살고 있었다. 1940년대의 인구는 대략 17만 명, 그 가운데 5만 명의 일본인이 시가지의 중심부에 살았고, 12만 명의 조선인은 주변부에 살고 있었다.

대구는 ‘2·26사건’의 주모자 중 한 사람인 이소베 아사이치(磯辺淺一)가 소속했었던 보병 제80연대가 주둔하던 군사도시이기도 하였다. 전쟁 말기에 진로 때문에 고민하던 중학생 소년의 모습을 그린 단편 「검은 여름(黒い夏)」(1963년)에서 고바야시는 대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고로(五郎)

11) 대구중학교에 대해서는 稻葉繼雄, 「大邱中學校について」, 『九州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紀要』 10권, 2007을 주로 참고했다.

는 우울했다. 그는 군인이 되는 것이 싫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꺼이 군인이 되고자 마음먹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 동네에는 오랜 전통을 가진 보병연대가 있어서 군인마을이라 해도 좋을 정도였다. 소학교의 동급생 중에도, 중학교 때부터의 친구 중에도, 보병장교의 아들이나 헌병의 딸 등이 아주 많았다.”¹²⁾ 덧붙여 말하면 이 글에서 다루는 「일본인 중학교」의 주인공 이름도 고로이다.

1936년에 발행된 『대구독본(大邱讀本)』이라는 청소년용 책에는 일본인 시민의 생활에 밀착하고 있던 보병 제80연대 ‘군기제(軍旗祭)’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4월 18일은 연대의 ‘군기배수기념일(軍旗拜受記念日)’로서, 매년 많은 시민이 참가하는 축전이 개최되고 있었다. 중학생였던 고바야시 마사루도 다음과 같은 식전에 참석했던 듯하다.

아, 찬란한 군기, 그 장엄함에 비할 것 없으며, 늘어앉은 참석자는 오직 감격에 겨워 조용한데, 하물며 장병의 가슴 속은 어떠한 것인가? 연대장은 공손하게 앞으로 나와서 봉고문(奉告文)을 낭독한다. 장병 등 일동은 군기를 높이 받들어 군인정신을 단련하고, 상하단결하여 위무 당당하게 널리 계림(鷄林)의 땅을 수호하므로 만민이 모두 그 업적을 즐기고, 밤낮으로 여기에 노력하거나 과거의 전적 등을 봉고하며, 명예로운 군기(軍旗)의 영예를 장래에 더욱 빛낼 것을 맹세한다.

연대장의 봉고가 끝나면 군대와 중등학교의 분열식(分列式)이 시작된다. 나팔에 발걸음을 맞추어 대오를 정비하여 나아가는 모습은 실로 위풍당당한 장관의 극치이다.¹³⁾

1921년에 개교한 대구중학교 부지는 제80연대 주둔지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었으며, 패전으로 인하여 일본인학교로서의 기능이 정지될 때까지, 가령 군사교련이나 야외연습 시에 지도와 지원을 받는 등 연대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일본의 패전 후 80연대 부지에는 미군

12) 『小林勝作品集』 4권, 270~271쪽.

13) 『大邱讀本』, 大邱府教育會, 1937, 56~59쪽.

이 주둔하였고, 그 구획 안에 있던 중학교도 한국전쟁 때에 미군에게 접수되었다. 이후 그 땅은 주한 미군기지로 사용되고 있다. 중학교는 도로 반대편으로 교사가 이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립 당초부터 학교 군사교련은 조선 전체의 중학교 가운데 제일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군사주의의 기풍이 매우 강했다. 초대 교장의 증언을 보자. “다행히도 대구중학교는 보병 제80연대와 인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래에 대단한 편의를 얻고 있었다. 기숙사 창문으로 날마다 병졸들이 열렬하게 교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부지불식간에 정신수양에 도움이 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했다. 특히 올 가을에는 실탄 훈련에 대한 지도, 운동회 때 기관총대의 응원에 이어서 이번 3일 동안의 영내 숙박 등 얻는 바가 매우 많았다.”¹⁴⁾

이와 같은 군과의 밀접한 관계는 전쟁의 위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강해져 갔고, 빨리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이 되는 것이 장려되기에 이르렀다. 1940년에 입학한 고바야시 마사루는 21회생에 해당하는데, 이때의 입학자 수에 대한 졸업자 수의 비율은 역대 최저였고, 입학부터 졸업(1945년 3월)까지 계속하여 재적한 자는 36%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많은 학생이 군관계 학교로 진출해 갔는데 고바야시 마사루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1944년 4학년을 수료하고 육군예과사관학교(陸軍予科士官學校)에 진학했다. 앞서 말한 단편 「검은 여름」에는 시대의 분위기에 쫓겨 한시라도 빨리 군인이 되기 위해 초조해하는 중학생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 밖의 다른 소설에서도 여름방학을 빼앗기고 강제로 동원되어, 영문도 모른 채로 타는 듯이 더운 한 여름에 오로지 비인간적인 노무작업에 시달리며 가혹하게 소모되어 가는 소년들에 대한 기술이 여기저기에서 보인다. 그들은 전쟁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세대라 할 수 있다.

소설 「일본인 중학교」의 무대는 이런 배경을 가진 대구중학교이다. 차가운 비가 내리는 5월의 어느날, 젊은 신임 영어교사가 나타난다. 강당에서

14) 『京城日報』 1924년 11월 9일. 稻葉, 앞의 글, 13쪽에서 재인용.

그 교사의 자기소개를 들은 주인공인 중학교 3학년 소년 고로(五郎)는, “순식간에 흠어진 회색 구름 사이로 한 조각의 창공을 엿본 듯한 인상”을 받는다. “남자는 선명한 색의 푸른 양복을 입고 새빨간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키는 아마 5척 8촌 정도였다. 그는 로이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테는 검은 색이 아닌 연지색(臘脂色)이었다. 머리카락은 젊음을 드러내기라도 하는 듯 새카맣고 윤이 났다.” 옷 입는 맵시도 좋고 젊음과 생기가 충만하여, “개성적인 청춘”이라 부르기에 어울리는 신입교사에 비하면, 열석한 다른 교사들의 풍채는 너무나도 볼품없이 느껴졌다. “그들 대다수는 볼품없는 카키색 국민복을 입고 있었고, 까까머리였다. 그들은 각기 전공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출세하지 못해 남아 바래진 관리처럼 끊임없이 무언가에 흠칫거리며 지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개성을 가진 인간이라 부를 수가 없었다.”

젊은 신입교사가 입을 열었다. “나는, 올 봄에 동경고등사범학교(東京高等師範学校)를 졸업한 우메하라 겐타(梅原健太)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신입교사가 성씨를 발음할 때의 ‘마키지타(巻き舌, 혀끝을 말듯이 하여 강하게, 또는 빠르게 말하는 어조)’에, 식민지에서 태어난 고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키지타는 ‘외지(外地)’ 태생인 그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던 도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고로는 우메하라 겐타의 세련된 모습과 마키지타로 말미암아 그가 도쿄 출생일 뿐만 아니라, 죽 도쿄에서 자랐을 것이라고 믿어 버린다. “그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괴로울 정도로 축적되어 있던 일본 내지(内地) 특히 도쿄를 향한 동경이, 지금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영어에 능통해서 강의도 문학적으로 진행하는 우메하라 겐타는 곧바로 학생들의 열렬한 인기를 얻게 된다. 엄격하기는 했지만 다른 교사와 달리 결코 학생을 때리지는 않았다. 도쿄에서 보낸 자유롭고 신선한 학생시절 이야기가 식민지의 일본인 학생들을 매료시켰다. 게다가 “일단 밖으로 나가면 그는 금세 교사임을 그만두고 그저 보통의 친구가 되었다.” 배구를 잘 했던 우메하라 겐타는 학생들과 함께 땀범벅이 된다. “한번 더, 그래, 한

번 더. 배구 경기장에 내리쬐는 초여름 햇빛과 아카시아 꽃의 향기 속에 퍼지는 우메하라 겐타의 목소리에는 즐거운 흥분이 감돌고 있었다. 땀을 흘리고 무릎이 까지어 기진맥진하면서도, 고로는 새로운 피가 공기 속에서 자신의 몸 속으로 흘러 들어옴을 느꼈다.”

이와 같이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식민지 조선으로 건너와 발랄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우메하라 겐타였지만, 어느 날 “꺼림칙한 의혹”이 안개처럼 학생들 사이에 흐르게 된다.

—우메하라 선생님은……조선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로는 차가운 쇳주먹이 그의 어린 심장을 때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안이 병병했지만 가까스로 되물었다.

—누가 말했어, 그런 잔인한 말……(잔인한 말, 고로에게는 진실로 그랬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일본인사회 속에서 자란 소년들에게 ‘조선인’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꺼림칙한 낙인과 같은 여운을 가지고 있었다. 우메하라 겐타가 도쿄 출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품게 되어 동요하고 있는 고로 앞에, 그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상쾌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영어 수업이었다. 당황한 고로는 잠시동안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실 전체에 “희미하나마, 그러나 확실하게 움터난 최초의 암세포, 한 순간이 지나면 맹위를 떨치게 될지도 모를 미묘한 공기가 자라고 있는” 것을 감지했다. 한 학생이 일부러 부자연스럽게 재채기를 하여, 교실 속 공기의 변화를 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메하라 겐타를 도발한다. 그는 재채기의 진의를 알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여 웃으면서 농담하는 것으로 그에 대응했는데, 그 명랑한 목소리가 교실 속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불온한 공기 속에서 고로는 혼자 번민하면서, 우메하라 겐타의 모습을 물끄러미 관찰한다. 그러자 불가사의하게도 세련된 두발과 고운 이빨 등 지금까지 그가 “순수한 도쿄”의 증거라고 믿고 있던 것이 모두 조선인의

특징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그의 마키지타조차도 도쿄 사람이 아닌 조선인의 민족성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고로는 마음 속으로 중얼거리기 시작한다. “선생님 머리는 이상하게도 가르마가 확실하네. 저렇게 포마드를 더덕더덕 쳐바르고 있으니 그렇지. ……저래서야 흡사 조선인 모던 청년과 똑같지 않은가? ……야, 웃었다. ……저 깨끗한 이빨은 어땀가? 조선인은 건강하고 하얀 이를 가진 자가 많지만, 그건 일본인처럼 어릴 때 단 것을 그다지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놈들은 정성들여서 이를 닦으니까. 치약을 살 수 없는 놈들은 소금으로 이를 닦을 정도니까. 아, 지껄이고 있네. ……저 마키지타는 어떻게 된 걸까? 조선말에는 마는 듯한, 쥐어짜는 듯한, 혹은 굴리는 듯한 어려운 발음이 많잖아. 마키지타 따위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손쉬운 일임에 틀림없겠지.” 이처럼 상대가 이민족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히자, 일본인 사회에서 특권적으로, 또한 주위에 빠져 있던 조선인 세계로부터 격리된 상태로 살아온 식민자 아들의 마음 저 깊은 바다에 자기도 모른 채 축적되고 있었던 조선인에 대한 편견이 표출된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이 장면에 앞서 고로가 자신이 자라온 조선의 거리와 풍물로부터 격리되어, 식민자의 세계관을 내면화해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내지’의 고향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고로의 아버지는 ‘내지’와 달리 민둥산이 끝없이 이어지는 조선을 마음 속 깊이 경멸하고 있었는데, 그 격렬함은 증오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고로에게는 “그의 눈이 미치는 자연이 그의 모든 세계”였고, 그는 조선인 동무들과 완전히 똑같이 조선의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어린 고로에게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연하게 굽이치고 있었다. ‘불결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아버지의 말과는 어떠한 상관도 없이, 그것은 엄연히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살고 있던 소년에게 ‘내지’의 잡지와 그림책이 주어진다. 녹색으로 덮여 있는 ‘내지’의 산 사진에 경이의 소리를 지르는 고로의 눈에, 자신의 주위에 널려 있는 붉은 흙을 드러내고 있는 조선의 산들은 어째서인지 이상한 것처럼 비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고로에게는 눈이 닿는 곳까지가 그의 세계였고, 그 너머는 보이지 않았으며 세계 또한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는데, 눈이 미치는 곳보다 더 먼, 아득한 저편의 안개 낀 산맥보다 더욱 건너편에—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내지’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고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조국’이나 ‘고향’이라는 관념이 심어지고, 그때까지는 우열의 가치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조선의 자연이 소년으로부터 괴리되어 가게 된다. 일본인인 자신이 조선에서 사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생각되기 시작했으며, “고로는 자신이 일본인이면서 일본을 조금도 모른 채 살풍경하고 불결한 식민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억울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일본 내지의 땅을 밟고 싶다”는 감각을 가지게 된다. 지난날 ‘만세사건(萬歲事件)’의 무서운 기억을 읊조리면서 조선인을 타기하며, 확신에 찬 어조로 “기실 조선인만큼 신용할 수 없는 놈은 없다”고 말하는 아버지의 결론도 고로는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내지’의 자연과는 너무나도 다른 조선의 자연이 드디어 서먹서먹하게 느껴지게 되었고, 게다가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로는 변함없이 조선에 살고 있었지만, 이미 조선인의 생활과는 완전히 무관해졌기” 때문이었다. 우메하라 겐타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고로의 시선을 속박하고 있던 것은 구체적인 생활로부터 분리되어 버리고 만 출생지 조선과, 그와는 대조적으로 추상적인 관념세계 속에서 점점 비대해지던 ‘고향’ 일본과의 식민주의적 적대관계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련된 한 사람의 개성적인 인간이고, 거리의 일본인 청년 가운데에서조차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해 보이는” 우메하라 겐타에게 속었다는 점에 증오를 느낀 고로는, “이 교사의 정체를 밝히겠다”는 결심을 한다. 뒷날 교무실의 청소 당번이 된 고로는, 주위의 눈을 피해 우메하라 겐타의 책상을 뒤져서 소지품의 서명을 조사해 보려 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창씨개명(創氏改名)’이 시작된 것은 고바야시 마사루가 대구중학교에 입학한 1940년이었는데, 우메하라 겐타의 오랜 소지품에는 조선 이름이

기입되어 있으리라고 의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메하라의 책상 서랍에서 목제 파이프를 훔쳐 나온 고로의 이 시도는 허사로 끝난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가까워진 어느 날, 결국 학생 한 사람이 증거를 손에 넣는다. 솔숲 속에서 스모(相撲)를 하고 있던 우메하라 겐타가 벗어 놓은 양복을 뒤져보았더니, ‘최(崔)’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교내 “모든 곳에서 탄식과 노한 목소리, 웃음소리를 불러 일으켰다.”

에세이 「그립다’고 해서 안 된다」에서 고바야시 마사루는 이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그가 조선인이라는 소문을 흘린 것)을 누가 했는가 아니라, 그가 다른 아닌 자신의 조국에서 조선인이라는 그 사실을 이유로 일거에 냉소와 모멸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점에 있으며, 그 일본인 중학교의 전 교사, 전 학생에게 문제의 중심점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물론 일의 본질로는 그러하지만, 이를 처음으로 폭로한 자의 건줄 데 없는 잔혹함, 비열함을 나는 지금 증오한다. 짐작컨대, 우메하라 겐타씨는 인간적으로 매력이 너무 많았고, 교내의 인기를 독점하였기에, 일본인 교사들이 마음의 평정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나는 소문이 나온 근원은, 이런 일을 쓰기란 괴롭지만, 교사들 중의 누군가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혹을 가지고 있다.”

Ⅲ. ‘우메하라 게이이치(梅原圭一)’의 침묵

이 글의 제목이 이미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소설 「일본인 중학교」에 나오는 우메하라 겐타(梅原健太)의 모델은 훗날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이 되는 최규하이다. 해방 후 1951년 이래 외교가를 올곧게 걸어온 직업공무원으로서 권력지향과는 무관했던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그야말로 운명의 장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는 외무부장관으로 근무하였고, 오일 쇼크 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외교 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한국외교사에 그 나름의 이름을 남기고 있는 우수한 외

교관이었다. 난세의 간웅(姦雄)을 연기하지는 못한, 전형적인 치세의 능신(能臣)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구중학교 부임 당시의 최규하는 동경고등사범학교를 갓 졸업한 20세가 막 지난 청년이었다. 일본 이름은 ‘우메하라 게이이치(梅原圭一)’였다. 최규하의 일본인 중학교 부임에 대해서 총독부는 난색을 표하였으나, 동경고등사범학교와 대구중학교가 강경하게 요청한 결과 그의 취직이 실현되었다. 최규하는 이를 감사히 여겼다고 한다.

우선 여기에 최규하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 둔다. 대통령까지 지냈던 최규하는 청소년 시절에 배운 영어를 활용하여 처음에는 영어교사가 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외교관으로서 직업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었다. 약력을 짚어 보면, 진지함, 성실함, 소박함, 정직함이라는 인물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평전 등에도 ‘근면’, ‘청렴결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최규하는 ‘3·1독립운동’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은 1919년 7월, 강원도 원주의 영락한 양반가에서 태어났다. 조부는 대한제국 말기 최고학부인 성균관의 고명한 박사였다고 한다. 원주보통학교 시절의 동창생은 “休息時間에 거의 教室 밖에 나가 놀지 않고 當時 學校에 많이 備置되어 있던 圖書를 빌려 熱心히 읽은 工夫벌레의 別名을 듣기도 하였다”고 당시 최규하의 모습을 회고하고 있다.¹⁵⁾ 1932년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등학교)에 입학 하거니와 소년시대부터의 근면한 모습은 일관되고 있었다. 최규하는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언제나 급장인 모범생이었다.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잘 어울려 놀지도 않았고, 싸움이나 남을 욕하는 법 없이 언제나 손엔 역사책이나 철학서적이 들려 있었다”고 한다.¹⁶⁾ 특히 영어에 유별난 재능을 발휘하였다. 졸업 때의 석차는 약 200명 가운데 2등이었다. 조선 제일의 명문인 경성제국대학에도 합격하였으나, 조부의 죽음과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가운

15) 元珩常, 『崔 大統領의 幼年時節과 나』, 原州國民學校開校八十年年史編纂委員會 編, 『開校八十年史』, 原州國民學校同窓會, 1987, 162~163쪽.

16) 金明珪, 『私心 없는 行政家』, 現석최규하대통령팔순기념문헌집발간위원회 編, 『玄石片貌』, 崔규하전직대통령 비서실, 1998, 376쪽.

이 기울어 있던 무렵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선택하였다.

1937년 동경고등사범학교 영문과에 입학하는데, 최규하 재학 당시 약 1,200명의 전교생 중에서 조선인은 최규하를 포함하여 2명밖에 없었다. 상당한 식민지 엘리트였음을 엿볼 수 있다. 2학년 때 아버지가 죽고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자 어머니가 직접 밥을 경작한다든지 가축을 팔아 도교에 송금했다. 최규하 자신도 외국어 번역이나 가정교사를 하는 것으로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다. 교수의 소개로 학생의 집을 찾았으나 이유 없이 거절당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¹⁷⁾ 이러한 곤란을 거쳐서 1941년 3월에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다. 동경고사 출신자는 식민지 조선의 중학교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규하도 학벌의 은혜를 입게되어 즉시 대구중학교에 부임하게 된다.¹⁸⁾ 고학 끝에 겨우 손에 넣은 교직이었다. 소설 「일본인 중학교」에 묘사된 것은 이 시절의 최규하이다.

그러나 대구중학교에서 보낸 교사 생활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고, 그는 1년 반만에 사직한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 「일본인 중학교」의 기술을 보건대 교직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최규하는 이 시점에서 대구를 떠날 뿐만 아니라 교직 자체를 내던지고 진로를 크게 전환하였다. 1942년 10월 만주의 대동학원(大同學院)에 입학했다. 소년 시절부터 작문에 뛰어났고 어학이 우수했으며 동경고등사범학교의 영문과를 나온 그가, 이번에는 정치학과 행정학을 전공하였다. 교사가 아니라 관리로 살아가려 했던 것일까? 1943년 7월에 졸업한 후, 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2년 동안은 만주국의 관리로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해방 후에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잠시 교편을 잡고 있었으나, 1946년 4월부터 미군정 중앙식량행정청으로 직장을 옮긴다. 탁월한 영어실력을 평가받아 1951년에는 외무부 통상국장에 발탁되는데, 이후로는 계속하여 외

17) 崔興洵, 「평생 정당에 가입한 적 없는 직업 공무원」, 위의 책, 392~393쪽.

18) 稻葉繼雄, 『旧韓國~朝鮮の日本人教員』, 九州大學出版會, 2001, 191쪽.

19) 姜尊식, 『대통령 이야기』, 에스위캔, 2011, 210~211쪽.

교관으로 활약했다. 1967년에 외무부 장관에까지 승진한 후, 건실한 행정 수완과 함께 아마도 정치적 야심이 없다는 점이 평가되어 국무총리에 취임하게 된다.

청년시절부터 외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검소한 생활방식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해방 직후 서울師大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엔 전차비를 아낀다며 回基洞 자택에서 乙支路5街 學校까지 매일 자전거로 오갔다. 외무장관에서 總理를 거쳐 오는 동안에도 가정부 1명을 고용해 본 적이 없으며, 朝夕 식탁은 시래기토장국에 김치와 山菜 몇 가지가 전부다.” 외교관으로 오래 근무하면서도 골프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장남을 병역에 보내기 위하여 본국으로 불렀으며, 총리로 근무할 때에도 외동딸을 버스로 통학시킬 정도였다.²⁰⁾ 대통령이 되어서도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나 비서관이 놀랄 만큼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저도 특별한 장식조차 없는 평범하고 조그만 집이었다.²¹⁾ 미증유의 비상시기에 대통령이 된 최규하였으나, “나같은 사람에게 누가 총을 겨누겠는가”라며 경호를 귀찮아했다고 한다.²²⁾ “최 대통령은 관리로서 꼼꼼하고 신중하며 온후한 능리(能吏)였다. 그러나 너무 세심하고 결단력이 없으며 지나치게 소심하여 현실을 추종하는 타입이라는 비판도 있었다.”²³⁾ 고 하는데, 후세의 평가는 역시 이런 식으로 낙착한다. 제5공화국과 관련한 증언을 일체 거부한 채, 2006년 10월 22일 87세에 유명을 달리한다. 고비야시 마사루가 소설 「일본인 중학교」에서 묘사한 것은 이러한 생애를 보낸 최규하의 알려지지 않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소설의 결말을 보도록 하자. 어떤 일본인보다도 일본인답게 보였던 우메하라 겐타가 실은 조선인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실망이나 분노, 혹은 광희(狂喜)라고도 하기 힘든 이상한

20) 金明珪, 앞의 글, 378~379쪽.

21) 권영민, 『자네 출세했네』, 현문미디어, 2008, 29~30쪽.

22) 위의 책, 102쪽.

23) 池東旭, 『韓國大統領列伝』, 中公新書, 2002, 136쪽.

흥분이 폭발한다. 한때는 그에게 동경을 품고 있었으나, 소문이 퍼지자마자 삽시간에 식민자로 변모해 버리는 주인공 고로 역시 그러한 흥분 속에 있었다.

우메하라 겐타의 ‘정체’를 알게 된 일본인 학생들의 지배자 의식은 단숨에 분출하는데, 다음날 영어 시간이 시작되기 전, 교실은 이상한 활기에 둘러싸인다. 누군가가 힘껏 창문의 커튼을 잡아 찢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밖에서 깨진 오지그릇과 밥공기를 가져왔는데 이것들로 교탁이 장식되었다. 어떤 학생은 흑판에 “講談 新鴨綠江節 一龍崔貞山”이라는 글씨를 커다랗게 쓰고, “崔” 자 옆에 겹동그라미를 그렸다. 잔인한 열기로 가득차 있는 조용함이 흐르는 교실에 경쾌한 발걸음으로 우메하라 겐타가 들어오지만 곧바로 교실의 이변을 알아차린 그의 안색은 변한다.

그 뒤 평소 명랑하고 독실한 우메하라 겐타가 “섬뜩한 바람”을 일으키듯이 격양하는 모습을 학생들은 순식간만 목격하게 되었다. 우메하라 겐타는 오지그릇과 밥공기를 집어들어 창밖으로 내던지고, 커튼으로 덮인 교탁을 난폭하게 차서 넘어뜨렸으며, 미친 것처럼 양손으로 흑판의 글씨를 지웠다.

고바야시 마사루의 에세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목격자(이렇게 적기에는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전사한 나의 형이다)가 말한 바에 따르면, 최씨는 그대로 흑판을 향한 채 계속 서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고바야시가 말하는 형은 두살 터울의 둘째 형으로서, 패전 후인 1945년 10월에 ‘학도출진(學徒出陣)’으로 종군 중이던 중국에서 병사하였는데 마사루와 매우 친했다고 한다. 소설은 이어지는 우메하라 겐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친척히, 모두를 향하여 돌아섰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마에 늘어뜨려져 있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얼굴도, 파란 양복도, 빨간 넥타이도, 분필가루와 먼지로 매우 더러워져 있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파랗다. 입술에도 혈기가 없었다. 눈은 정신 나간 것처럼 크게 떠져 있었고, 양손은 축 늘어뜨린 그대로였다. 가까스로 그는 낮고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짓이라도 했나……

잠시 학생들을 바라보던 우메하라 겐타는 이윽고 기운을 되찾은 것처럼 입가를 굳게 다물고, 분필가루 투성이의 양손과 양복에 묻은 가루를 털어 내었다. 비뚤어진 넥타이를 바로한 뒤, 그는 “똑똑히 얼굴을 들고” 조용해진 교실을 나갔다. 그리고 학교에는 여름방학이 찾아온다.

여름방학이 끝난 뒤 첫 조회에서 학생들은 교장의 훈화를 듣는다. 교장은 어눌해 보이는 생경한 노인을 데리고 있었다. “—우메하라 선생님이, 라고 아무런 감정도 섞여 있지 않은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었기에, 그 후임으로 오게 되신 영어의 사노 선생님을 소개할게요. 사노 선생님은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이제서야 고로는 우메하라 겐타의 모습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앞에 서 있던 소년이 돌연히 돌아보면서 고로에게 속삭인다. “우메하라 선생님은 만주인가 지나로 가 버렸대…….”

우메하라 겐타가 모습을 감추고 다른 교사가 나타난 것 이외에, 중학교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싸늘한 공기가 주위를 감싸는 가운데 이야기는 끝이 난다.

IV. 삼십년만의 충격

한국에서조차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그립자가 희박한 최규하인만큼, 일본에서 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가운데 그에 대해 조금이나마 기술되어 있는 드문 일본어 문헌에서, 지동욱(池東旭)은 최규하가 걸어온 식민지시대의 자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다.

청천벽력, 생각지도 않게 대통령 자리에 앉은 최규하는 강원도 원주의 영락한 양반가에 태어나, 구 대한제국 말기 유학의 최고학부 성균관의 박사였던 조부로부터 한문을 배우고, 유교적 전통 속에서 자랐다. 경성제일공립고

등보통학교(현 경기고교)를 2등으로 졸업, 재학 중에는 특히 영어에 뛰어났다. 41년에 동경고등사범(현 쓰쿠바대학(筑波大學)) 영문과를 졸업했다. 고등사범 재학 시에는 가정교사와 번역으로 학비를 벌었다.

귀국 후, 한때 교편을 잡았으나 바로 사직하고 만주관리 양성기관인 대동학원에 입학하였다.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그가 왜 교단을 떠나 만주까지 갔는가는 명확하지 않다.²⁴⁾

이 글은 고바야시 마사루의 소설을 실마리로 삼아 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조명하였다. 본인이 입을 열었던 적이 없으며 상세한 평전도 없기 때문에, 최규하가 만주로 떠난 것이 고바야시 마사루가 묘사한 사건 탓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령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최규하가 대구를 떠나고 또 교직을 버리는데 있어서 커다란 계기가 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최규하는 1941년 3월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10월에 만주 대동학원에 입학하였으므로, 고바야시의 기술이 사실이라면 그가 대구중학교에서 모욕을 받은 사건은 1941년 혹은 1942년의 여름에 일어난 것이 된다. 소설을 상세하게 읽어 내려가면, 부임 2년째인 1942년 여름방학 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목격자로 되어 있는 고바야시 마사루의 둘째 형은 1940년에 입학한 마사루보다 두 학년 위였다. 소설의 첫머리에 “警部를 부친으로 둔 미즈토리 고로(水鳥五郎)는 신학기가 되면 중학교 3학년이 된다”는 기술이 있으므로, 사건이 일어나는 “신학기”는 둘째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940년이 된다. 그러나 이는 1941년에 ‘우메하라 게이이치’가 부임했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 한편, 고바야시 마사루가 3학년이 되는 것은 1942년 봄이다. 따라서 1942년 여름방학 전에 사건이 일어나, 실의한 최규하가 바로 교직을 버리고 가을에 만주로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만주행이 계획적인 것이었던가, 아니면 대구중학교에서의 좌절을 빌미로 한 돌발적인 것이었던가는 알 수 없다. 소설에서는 우메하

24) 위의 책, 135쪽.

라 겐타의 부임에서 사임까지가 겨우 수개월(1942년 5월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우메하라 겐타의 모델이 된 ‘우메하라 게이이치’ 곧 최규하는 1941년 봄부터 1942년 여름까지 대략 1년 반에 걸쳐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학생들과 접촉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 사이의 그의 심경에 대해서는 소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대구중학교에 관해 상세한 연구를 행한 이나바 쓰기오(稲葉継雄)는 최규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데, 고바야시 마사루의 소설에 나타난 우메하라 겐타의 인물상과 완전히 부합한다. “최규하(梅原圭一)는 ‘동경고등사범을 막 졸업한 가장 젊은 영어교사로서 얼굴이 희고 키가 컸으며(……), 또 스포츠에 관해서는 배구에서 승마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것이 없었기에 짧은 시간에 학생의 신망을 모으게 되었’으나, 역시 민족간의 벽은 두터워서 1942년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10월 22일 학생들의 배웅을 받으며 대구에서 신정(新京)으로 떠나 만주국 관리가 되었던 것이다.”²⁵⁾

1942년 가을 “학생들의 배웅을 받으며” 만주로 떠난 최규하의 심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민족성에 대한 일본인 학생들의 모독행위로 인하여 대구중학교에서의 모든 추억이 더럽혀져 있었을 당시 환송의 광경은, 양자 모두에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던 것이었을까?

소설 속에서이기는 하지만 고바야시 마사루는 강당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신임 영어교사의 첫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마침 교실에서 일어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둘째 형이었으나, 1940년에 입학한 마사루 자신도 1941년에 부임한 ‘우메하라 게이이치’의 모습은 직접 보았을 것이다. “그는 발랄하게 통통 튀듯이 걸어왔다. 고로에게는 그의 몸 속에 투명한 나사가 있고 그것이 극한까지 감겨 있어서 그 자신도 억누를 수 없는 내부의 에너르기가 가득차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긴장과 기대로 하얀 뺨을 붉게 물들이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그의 모습은 이제 애처롭기 그지없다.

25) 稲葉, 앞의 글, 10~11쪽.

남자는 조금 입을 깨물고서 고로 등을 보는 대신에 어딘가 먼 곳의 한 점을 응시하면서 유쾌한 바리톤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올 봄에,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우메하라 켄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회고한 뒤에, 에세이 「‘그렵다’고 해서는 안 된다」에서 「일본인 중학교」의 주제를 돌아보는 고바야시 마사루의 글을 이어서 보자.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처음부터 ‘일본인’으로 자신을 내세워 온 인간에 대한 오늘날의 비판은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을 동포인 조선인은 부정, 비판할 수 있어도 이국인, 침략자인 우리들이 어떤 얼굴과 목소리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을까?

나는 소설이나 에세이를 쓸 때마다 결코 안이하게 ‘그렵다’고 해서는 안 되는 그 시절의 사람들을 추억한다. 이를 마지막으로 대구공립중학교에서 모습을 감춘 최씨를 추억한다.

그러나 “최씨”는 대구중학교를 떠나 그대로 망각의 저편으로 사라져 간 것은 아니었다. 만일 이것이 “마지막”이었다면 고바야시 마사루가 죽음의 구렁에서 이 에세이를 남기는 일은 없었을 터이다. 최규하의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고바야시 마사루는 그를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으로는 결코 보려고 하지 않았다. 고바야시가 이 소설을 통해서 쓰려고 한 최규하의 알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은 바로 그가 식민자의 아들로써 직접 보고 겪어 온 한일관계의 복잡함이기도 했을 것이다. 에세이는 결론을 향해 간다.

소설가라는 직업상, 이름을 들어도 누군지 잘 생각나지 않는 중학교 시절의 동창생으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걸려 오는 일이 있다는 고바야시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남기고 있다.

소학교, 중학교--그것은 식민지에 있었다.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상대는 ‘그립다’며 전화를 걸어 온다.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기에 전화하는 것이겠거니와, 나는 ‘그립다’는 감정의, 결코 ‘그리워’서는 안 되는 그 반대편에서 그 ‘그리움’을 때려 부수고 완전히 새롭게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며 쓰고 있으므로, 전화를 받는 기분은 복잡하다.

—자네는 무슨 소설을 쓰고 있는가, 라고 상대가 물었다.

—여러가지네, 내가 말했다, 우메하라 선생님을 떠올리고 만 이야기도 썼다네.

—우메하라 선생님? 상대는 이어서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 아, 그 외무대신, 한국의 최 외무부장관말인가.

이 말은 정확히 나의 심장을 쏘았다.

고바야시가 이 글을 쓸 당시는 그 모욕 사건이 일어난지 이미 30년의 세월이 지나간 후였다. 최규하는 물론 대구중학교에서의 30년 전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한국의 외무부장관으로서 일본의 각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한일간의 국교가 정상화된 지 5년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양국 정부와 국민간의 상호이해 및 협력관계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²⁶⁾ 그러나 고바야시 마사루는 그 내면을 다소나마 짐작할 수 있는 역사적인 위치에 서 있었다. 식민지시대에 최규하의 마음을 찢어 놓았던 식민자의 아들로서의 위치와, 반공을 국시로 하는 한국과 엄중하게 대립하는 공산주의자로서의 위치이다. 다음과 같은 말로 고바야시는 에세이를 마무리하고 있다.

내가 직접 이 소설에 쓴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찍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그런 사건이 무수하게 되풀이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마음이 두동강이 나버렸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현재의 일본정부를 친구로 삼는 외교사령관은 전혀 다른 일본인관을 아마도 심중에 가지고 있을 외무대신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본의 전후 25년을 살아온 나와 지금은 정면으로 대립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리라. 이처럼 복잡하게 몇

26) 「최규하 외무부장관의 양국관계 일반 및 국제정세에 관한 발언(1970. 7. 23, 서울)」, 한영규, 윤덕민 엮음, 『현대 한일관계 자료집1』, 도서출판 오름, 2003, 258쪽.

겹이나 굴절된 사실을 나는 ‘일본과 일본인에게 조선 및 조선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페이지 위에 지금 무거운 펜을 들고 적어 나가야만 한다.

대통령시대까지 10년 이상을 모셨던 비서관이 격앙된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고 증언하리만큼 온후한 성격을 가진 최규하가, 교단을 차서 넘어뜨릴 정도의 젊은 날의 그 놀랄 만한 분노에는 어떤 심정이 반영되어 있었을까? 고바야시 마사루는 둘째 형에게 전해 들은 교실에서의 그 잔혹한 장면을 상상하고, “마음이 두동강이 나버렸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흡사 조그만 동물을 조금씩 몰아붙이는 듯한 일본인 학생들의 멸시와 흥미 위주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우메하라 게이이치’는,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대호령의 공허함과 조국에 몰려온 식민자 아들들의 정신에 깃든 지배자 의식의 바닥을 알 수 없는 무서움에 전율하였을 것이다. 고바야시 마사루가 기록한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짓이라도 했나……”라는 우메하라 겐타의 한마디에는, 최규하가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을 조국 조선에 있으면서도 도피할 수 없는 고립감과 종주국의 위계질서에 순종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의 토대가 붕괴되어 가는 절망감이 응축되어 있으리라.

V. 마치며

최규하의 기구한 운명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동경 고등사범학교 시절의 최규하는 고학생이었다. 가족의 지원으로 빈곤과 차별을 견디면서 간신히 손에 넣은 교직이다. 본인도 겨우 1년 반만에 그만두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영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군정하의 한국에서 대학의 영문과 조교수로 잠시 근무한 후 군정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최규하는, 스카웃의 형식으로 외무부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로지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동란기의 어떤 우연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까지 된 것은 운명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외무부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상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런 영달의 꿈은 젊은 시절에 그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었을까? 추측에 지나지 않지만, 건실한 성격을 가진 그이기에 동경고등사범학교 재학 시절이나 잠시 동안의 교원 시절에는, 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으리라고 간주하지 못할 것도 없다. 고바야시가 묘사하는 신입 영어교사 우메하라 겐타는 장래 일국 외교의 통솔자가 될 듯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라기 보다,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그대로 담담하게 정년까지 근무해 가는 인물을 연상시킨다. 에세이에서 “지금도 살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1950년에 시작된 한국전쟁이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라고 쓴 고바야시 자신도, 최규하가 외교관으로 활약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소설 「일본인 중학교」 집필 당시인 1957년에는, 대륙으로 사라진 “우메하라 선생님”의 미래상을 그렇게 상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소설이 바로 발표된 1957년에, 최규하는 실은 주일한국대표부 참사관으로 도쿄에 부임해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 중학교」가 게재된 잡지를 손에 넣을 수 있는 환경에 있던 예외적인 한국인이었다. 만일 그때 이 작품을 읽었다면 어떤 감개를 가슴에 품었을까?

최규하는 직업공무원으로 평생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국가원수에게 오르는 대단히 특징적인 인물이었다. 야심적인 인물이었다면, 저 박정희가 자신의 뒤를 잇게 될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 40년에 걸친 독재라고 하는 격동을 헤쳐 온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운명에 희롱되지 않았던 인간이란 없을지도 모른다. 또 최규하가 대구중학교에서 받은 정도의 모욕이라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조선인이 식민지 지배하에서 일상적으로 받아 왔던 것이리라. 다만 최규하가 대구중학교에서 일본인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모욕은, 작지만 확실한 식민지 지배의 상처를 한 인간의 마음에 남겼고, 그의 운명을 크게 바꾸었다고 할 수는 있다.

마지막 작품집 『조선·메이지 52년(朝鮮明治五十二年)』의 발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에세이 「그렇다'고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이다.

이 소설집에는 조선에 오래 살면서, 조선인에게 직접 폭력적인 유형의 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친한 조선인 친구가 많았고, 평화롭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영위한 혹은 영위하려 한 일본인이 등장한다. 일찍이 출세하지 못했던 평범한 일본인 다수가 그랬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 혹은 지금 중년에 도달한 그들 아이들의 다수가 이십수년이 지나간 지금 조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에 관해서는 내 속에 담긴 그리움을 거부한다. 평범하고 평화롭고 무해한 존재였던 것처럼 보이는 ‘외견’을 그 존재의 근원으로 소급하여 거부한다. 이것은 과거로서 지나가 버린 일이 결코 아니다. 패전으로 그들의 역사와 생활이 단절된 것도 결코 아니다.²⁷⁾

제국으로 존재했던 일본과 적당한 규모의 민주주의국가로 거듭난 전후 일본의 역사적 단절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역사관은 오늘날 일본의 일반전인 역사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바야시 마사루가 최규하를 생각하면서 위의 글을 쓰고 있었는지는 물론 알 수 없지만, 왜 “내 속에 담긴 그리움”을 거부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 속에는, 젊은 날의 작은 꿈이 무참하게 짓밟힌 대구중학교에서의 꺼림칙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던 최규하가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최규하의 인생은 고바야시 마사루에게, 식민지에서의 “그들의 역사와 생활”이 과거의 것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하나의 생생한 증거이었다. 고바야시 마사루가 어디까지나 역사의 연속성을 외치려 한 것은, 과거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무수한 한국인이 일본에도 한반도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요, 그들의 존재가 그에게는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혹은 보려고 하지 않는 전후 일본사회가 한국전쟁을 거쳐 베트남전쟁에 가담하는 모습을 눈 앞에서 지켜본 그는, 그 지점으로부터 식민주의적 맹목에 사로잡혀 온 일본의 미래를 투시하였다.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지

27) 『小林勝作品集』 5권, 319쪽.

탕해 온 식민주의는 앞으로도 이어져 가리라고. 그는 삶의 마지막까지 이와 싸워 나갔다.

자신을 포함하여 “평범하고 평화롭고 무해한” 식민자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일종의 극단적인 ‘재조 일본인’관은 1959년에 쓴 「몸 깊은 곳의 이미지(体の底のイメージ)」라는 짧은 글에서 이미 거의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관은 에세이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에 직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고바야시 마사루의 문학적 과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 같은 것이었다.

내가 조선에서 태어난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15년 동안 일본인으로 조선에 있었다. 식민자로서 거기에 있었다. 나는 아이였다고 해 보아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나는 아마 조선인들에게 무해하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역시 아무런 변명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군인 가운데에 좋은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가 미국의 군대를 구성하는 일원임에 틀림없고 일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 역사란 이를테면 이와 같은 것으로, 내가 아이였으며 무해했을지언정, 한 사람만이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역사로부터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란 이렇게 엄혹한 것이요, 그 정도로 무거운 것이다. 그리고 나를 포함하여 모든 일본인은 이 역사를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짊어져야만 한다.²⁸⁾

고바야시 마사루가 생애를 걸고 문학으로 표현해 간 이 역사관을,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일본은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그가 “그 정도로 무거운 것”이라고 한 역사를 어떻게 짊어질 수 있는가? 그의 문학이 발하는 물음은 아직도 무겁다.

고바야시 마사루가 이 짧은 글을 쓴 것은 1959년의 일이었지만, 그해 3월 이미 일본에 있던 최규하는 주일 한국대표부 공사로 승진하였다. 한편

28) 小林勝, 「体の底のイメージ」, 『新日本文學』, 1959년 6월호, 80~81쪽.

고바야시 마사루는 같은 해 7월, 한국전쟁 때의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명으로 징역 1년의 실형판결을 받아 투옥된다. 고바야시가 감옥에 있던 9월, 최규하는 외무부차관이 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한다. 1959년은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려 보내는 ‘귀환사업’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였다. 최규하가 귀국한 한국은 1960년의 4·19혁명, 1961년 박정희 소장에 의한 쿠데타 등, 격동기에 돌입하게 된다. 만년의 최규하는 대통령 시절의 증언을 일체 거부했고, 자신의 생애를 공식적으로 회고하지 않은 채 2006년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1960년대에 입원을 요할 정도의 심각한 음주벽에 빠졌을 뿐더러, 결핵에 걸려 폐를 반 정도 절제하였고, 대량 투약으로 인한 정신착란을 경험하였으며, 1971년 3월, 최후에는 장폐색으로 죽었다. 그들이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다.

참고문헌

- 磯貝治良, 「原風景としての朝鮮——小林勝の前期作品」, 『季刊三千里』 1982年 春号.
- 稻葉継雄, 『旧韓国~朝鮮の日本人教員』九州大學出版會, 2001.
- 稻葉継雄, 「大邱中學校について——在朝鮮『内地人』學校の事例研究」, 『九州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紀要』 10卷, 2007.
- 音谷健郎, 『文學の力——戰爭の傷痕を追って』, 人文書院, 2004.
- 梶村秀樹, 『梶村秀樹著作集』 1卷, 明石書店, 1992.
- 川村湊, 「小林勝外伝」, 『滿州崩壊——『大東亞文學』と作家たち』, 文藝春秋, 1997.
- 後藤守彦, 『只、意志あらば——植民地朝鮮と連帶した日本人』, 日本經濟評論社, 2010.
- 小林勝, 『小林勝作品集』 全5卷, 白川書院, 1975~1976.
- 池東旭, 『韓國大統領列伝』, 中公新書, 2002.
- 朴裕河, 「小林勝と朝鮮——『交通』の可能性について」, 『日本文學』 2008年 11月号.
- 村松武司, 「植民者作家の死——小林勝について」, 『朝鮮研究』 1972年 3月号.
- 脇田憲一, 『朝鮮戰爭と吹田・枚方事件——戦後史の空白を埋める』, 明石書店, 2004.
- 강준식, 『대통령 이야기』, 예스위캔, 2011.
- 권영민, 『자네 출세했네—내가 본 대통령과 흥기 여사』, 현문미디어, 2008년
- 오미정, 「고비야시 마사루의 「포드·1927년」문—중개는 가능한가?」, 『일어일문학연구』 78호, 한국일어일문학회, 2011.
- 이원희, 「고비야시 마사루 문학에 나타난 식민지 조선」, 『일어일문학연구』 38호, 한국일어일문학회, 2001.
- 최준호, 「고비야시 마사루의 식민지 조선 인식—초기 작품들 속의 인물표상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48호, 한국일본어학회, 2011.
- 한영구·윤덕민 엮음, 『현대 한일관계 자료집1 1965년~1979년』, 도서출판 오름, 2003.
- 현석최규하대통령팔순기념문헌집발간위원회 엮음, 『玄石片貌——玄石崔圭夏八旬記念文獻集』 최규하전직대통령 비서실, 1998.

국문요약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와 최규하(崔圭夏)

하라 유스케

본고에서는 패전후 일본에서 조선문제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온 작가 고바야시 마사루(1927~1971)의 사상적 핵심인 조선에 대한 향수의 거부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고찰한다. 그는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난 식민자 2세였다. 만년의 에세이 「그렇다'고 해서는 안 된다(「懐しい」と言つてはならぬ)」(1971년)와 이 에세이에서 반성적으로 반추하고 있는 초기의 단편소설 「일본인 중학교(日本人中学校)」(1957년)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이 소설에서 고바야시 마사루는 1940년대 대구에서 보낸 자신의 중학교 시절의 한 일화를 소설화했다. 동경고등사범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 영어교사가 실은 조선인인 줄 알게 된 일본인 학생들이 그의 민족성을 모욕하고 결국 학교에서 쫓아내고 만다. 고바야시는 실화를 바탕으로 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포함한 그들 식민자 2세의 식민주의적 정신구조를 생생하게 그렸다. 그런데 마지막 에세이에서 그는 그 신입영어교사가 실은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규하였음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다고 썼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조선을 “그렇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핵심적인 근거 중 하나이다.

핵심어: 고바야시 마사루, 최규하, 식민지 조선, 식민주의

日文要約

小林勝と崔圭夏

原佑介

本論文では、戦後日本において朝鮮問題に最も真摯に取り組んだ植民地朝鮮生まれの作家小林勝(1927~1971)の、思想的核心である朝鮮に対する郷愁の拒否が持つ歴史的意義を考察する。最晩年のエッセイ「『懐しい』とってはならぬ」(1971年)と、その中で反省的に触れられている初期の短編小説「日本人中学校」(1957年)を分析対象とする。この小説の中で小林勝は、1940年代に大邱ですごした自身の中学時代における一つの逸話を文学化している。東京高等師範学校を卒業したばかりの新任英語教師が実は朝鮮人であ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彼を侮辱し、結局学校から追放してしまう日本人生徒たちの植民地主義を描き、植民地で生まれ育った植民者二世たちの精神構造のゆがみを明らかにした。ところで、最後のエッセイにおいて、小林勝はその新任教師が実は大韓共和国の外務部長官崔圭夏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知り衝撃を受けたと明かすが、これは、晩年の彼が朝鮮を「『懐しい』とってはならぬ」と主張するに至る重要な根拠のひとつとなった。

キーワード: 小林勝、崔圭夏、植民地朝鮮、植民地主義

• 접수 2012년 2월 28일 • 심사 2012년 3월 10일~30일 • 게재결정 2012년 5월 25일